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에프로시니 순교자

루가 제1주일

성 포카스 주교순교자

제5조,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교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B 226

· 사도경: 고린토 후 1, 21-2,4 / 봉독서 239

· 복음경: 루가 5,1-11 / 122. B 6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에프로시니 순교자

우리 교회는 성 에프로시니 수녀(413~470)를 9월 25일 축일로 기념합니다. 마치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성녀의 수도 생활과 삶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과연 하느님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불태우며 전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세속에 물든 영혼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성인들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하느님의 무한한 권능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평생 사랑하며 하느님의 권능을 믿고 그 힘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성인들의 삶을 공부한다면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감사와 친절



사도 바울로의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로는 선교 사업의 열매에 대하여 늘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로마서 1:8)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1고린토 1:4)라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사도 바울로는 그의 많은 어려운 선교 사업을 옆에서 도와 준 동료들에게 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비 교회 사업에 물질적인 도움을 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러나 고맙게도 여러분은 나와 고생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필립비 4:14)라고 큰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부탁할 뿐 명령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필레몬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그의 이런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로는 필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며 그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 몸으로서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필레몬서 8~9)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이런 감사와 친절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항상 지녔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배우자, 부모님, 친구들과 동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불필요한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혹은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너무 친밀해서 예의와 존중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밀한 관계가 사랑 안에서 지속될 수 있게 하려면 감사와 친절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면 주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돼지가 아니라 양이다

한 무리의 젊은 학생들이 아토스 산의 어느 영적 원로에게 가서 물었다.
“신부님, 예수님은 왜 우리를 돼지가 아니라 양이라고 부르셨나요?”
원로께서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셨지, 돼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양은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 곧바로 털고 일어나 빠져나오지만, 돼지는 한 번 빠지면 그 진흙 구덩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구덩이에 계속 있으면서 그 속에서 뒹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또 다시 일어나 가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용서해주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사람이며, 자신의 운명을 진흙탕 속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지극한 행복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수많은 줄기 가운데 작은 한 가닥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상상이거나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이 되도록 애씁시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공정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어둠을 꿰뚫으며 비춥시다. 어찌면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길을 안내하는 신호등이 되고 등대의 불빛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축일 예배가 거행될 것입니다. 각 지역 성당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축일 준비를 위해 꼭 수도원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봉사: 9월 28일(토)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9월 28일(토), 장년회와 신데즈모스가 수도원 대청소 봉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을 음식 축제
오는 10월 20일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장년회 수련회
오는 10월 11일(금) ~ 13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장년회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 식사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재밌는 오락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슬라브 교인 수련회
오는 10월 25일(금) ~ 27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슬라브 교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 식사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재밌는 오락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주간 예식

. 9월 26일(목) 성 요한 복음사가 축일 ▷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